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만전 장수군, 쾌적한 도시숲 조성

무주군, 만 18세 이상 2만1403명 중 80% 이상 접종 예상

무주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1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부터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2만1,403명이며, 접종 목표는 80%(1만7,123명) 이상 접종(정부 안전 국민 70%)을 예상하고 있다.

군은 3월부터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별 접종순서에 따라 일반 국민의 경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접종, 의료기관은 종사자 자체 접종을, 요양 시설 등은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방문 접종으로 실시된다.

또 백신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따라 전 국민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1분기에는 만65세 미만 노인요양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

사자,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119 구급대원 등), 보건의료인이 대상이다.

2분기는 만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받고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세~64세) 등이 접종을 받으며, 4분기는 2차 접종자, 미 접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5개소 종사자와 만65세 미만 이용자 95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위탁의료기관 시설 방문접종 및 보건의료원 내소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될 예방접종센터 1개소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1층)로 지정했으며, 대규모 접종공간과 교통접근성, 대기공간, 거리두기 등 주민편의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고 밝혔다.

특히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송금현 부군수가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꾸렸으며, 의사 및 간호인력 등으로 구성된 6개 팀을 편성, 예방접종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또 간호인력 등 모두 30여 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해 백신 보관·관리 및 이상반응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이금희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의료진을 위해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종 대상자는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학대 피해 아동 통합적 의료서비스 지원

진안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신

경과, 응급의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진안군의료원은 학대에 의한 피해아동 발생 시 상담과 신

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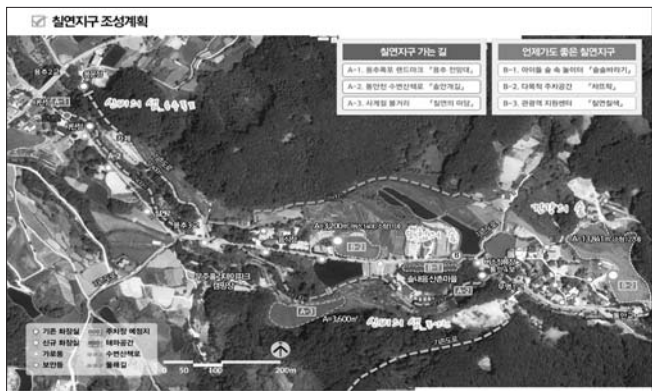
군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외에도 아동학대 긴급전화(432-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연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할을 모어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시동

무주군이 실시설계를 앞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동부권 체험형 관광 렌

드마크가 될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무주 칠연지구 조성계획도.

무주군은 23일 오후 안성면 통안마을 솔내음 산촌마을 세미나실에서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는 토대로 주민친화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설명회는 안성면 통안, 사탄, 용추마을 주민을 비롯해 이형재 관광진흥과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 주민공감대 형성과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세부계획 및 현재까지 과업을 진행한 주민간담회 결과내용 공유, 주민의견 반영내용 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여부, 발생지역 방문 이력, 출입명부 작성,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다. 이날 주민설명회 결과를 검토해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세먼지 저감·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해 8개 사업에 38억원 투입

장수군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활권 쾌적한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개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수 조성, 스마트가든불 설치사업,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전통마을숲 등이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스마트가든불 사업은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하고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이 도입된 관수, 조명, 공조,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 벽면녹화 정원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청의 스마트가든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총공사비 3억6,000만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12개소 공공시설과 사업체에 설치한다.

사업을 통해 잠재 농공단지과 천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과 천천면 하천변에는 가로수

0.5km를 조성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군 청사 지붕 위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도시열섬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꾀한다.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 일환으로 방치된 삼지공원 내 나무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농촌 주민들의 휴게공간 확충에도 주력한다.

장수군 대표 근린공원인 의암공원 일원에는 수변데크, 경관조명,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한우랑사과랑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산림청에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탄소중립 3,400만톤 기여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5(오)고실은 장수를 만들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에 안전하고 맑고 쾌적한 숲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무주군이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총 사업비 4억2,000여만 원을 투입, 친환경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부담을 줄이고 인증농가와 면적을 확대해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과 사업자(2020.10.~12. 인증을 받은 사업자) 2020년도 지침 적용)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경우 1건당 3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는 1건당 15만원, 유기농식품(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포함)은 1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은 1건당 55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올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35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유기질 비료를 비롯한 환경친화농자재, 토양개량제, 기능성 비료 등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환경보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무주읍 잠두마을과 설천면 기곡마을을 대상으로 토양과 우수, 생태, 경관 등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진안군은 매년 불철 저운피해와 여름 집중호우,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보험가입시기가 다르며 현재는 사과·배·단감·곶감 과수 4개 품목 가입은 3월 5일까지 가능하다. 그 외 주요 작물 가입 시기는 고추 4월~5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등이다.

2020년 기준 진안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319농가 1,626ha다. 보험

금은 559농가에 13억원이 지급됐으며 14개 품목에서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 농가는 증가 추세인 하지만 아직도 미 가입 농가가 많다. 이에 군은 농가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료는 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전복도가 15%, 진안군이 30%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은 5%에 그친다. 특히 벼는 진안군 관내 농업에서 농가부담금을 지원해 농가부담금이 없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황인홍 무주군수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황인홍 무주군수가 23일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강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날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고 쓴 파켓을 들고서 화재예방을 위해 모두의 실천과 노력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기취급과 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장영수 장수군수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세복 영동군수와 구인모 거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를 지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산불 예방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양해승)는 봄철 건조기에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입산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향적봉~중봉~영각탐방지원센터(17.5km), 황경재~신평령(7.8km) 등 모두 12개 구간 63.5km이며, 개방 탐방로는 설천봉~향적봉(0.6km),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향적봉(8.5km), 덕유대자연학습장~안심대 3.3km(어사길 구간), 황정~삿갓골재(3.4km), 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3.8km) 등 5개 구간 19.6km이다.

강성민 재난안전과장은 "산행 전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정보를 확인하고, 공원 내 화물품 반입, 흡연, 취사행위 등은 일절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